

중국 불후의 고전명작 (완역본)

# 수호전

SHUI  
HU  
ZHUAN

시내암라관중저  
박정일오수자역



중국 불후의 고전명작 (완역본)

# 수호전

3

시내암 라관중  
박정일 오수자 역

북문강 출판사

###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水浒传. 3: 朝鲜文 / (明)施耐庵, (明)罗贯中著;  
朴正一, 吴水姊译. —哈尔滨: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9. 4

ISBN 978-7-5389-1569-3

I. 水… II. ①施…②罗…③朴…④吴… III. 章回小说—  
中国—明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42. 4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9)第 049194 号

本书根据人民文学出版社 1997 年 1 月  
第 2 版翻译出版

## 차 례

- 제 61 회 오용은 지략으로 옥기린을 피여오고  
장순은 야밤에 금사도에서 소동을 일으키다 /1
- 제 62 회 연청은 암전을 쏘아 주인을 구하고  
석수는 형장을 치려고 루각에서 뛰어내리다 /23
- 제 63 회 송강의 군사는 북경성을 들이치고  
관승의 관군은 량산박을 치러 출정하다 /50
- 제 64 회 호연작은 달밤에 관승을 띄여잡고  
송공명은 눈속에서 색초를 사로잡다 /68
- 제 65 회 탁탐천왕은 꿈속에 나타나고  
랑리백조는 강에서 복수하다 /86
- 제 66 회 시천은 취운루에 불을 지르고  
오용은 지략으로 대명부를 취하다 /102
- 제 67 회 송강은 삼군에게 상을 내리고  
관승은 수, 화 두 장군을 항복시키다 /118
- 제 68 회 송공명은 밤에 증두시를 치고  
로준의는 사문공을 사로잡다 /137
- 제 69 회 구문룡은 잘못하여 동평부에 갇히고  
송공명은 의리로 쌍창장을 놓아준다 /156
- 제 70 회 몰우전은 돌팔매로 영웅들을 죽치고  
송공명은 량식을 버려 장사를 사로잡다 /170
- 제 71 회 충의당에서 석갈천문을 받고  
량산박 호걸들은 서렬을 정하다 /184
- 제 72 회 채진은 꽃을 꽃고 금원으로 들어가고  
리규는 보름밤 동경서 소동을 일으키다 /202

- 제 73 회    리규는 도사로 가장해 귀신을 잡고  
              량산박에 돌아가 수급 둘을 바치다 /222
- 제 74 회    연청은 지략으로 경천주를 이기고  
              리규는 수장현에서 현감교의에 앓다 /240
- 제 75 회    활염라는 배를 뒤엎어 어주를 훔치고  
              흑선풍은 조서를 찢고 사신을 꾸짖다 /259
- 제 76 회    오가량은 사두오방기를 늘이고  
              송공명은 구궁팔괘진을 벌리다 /273
- 제 77 회    량산박에서는 십면으로 매복하고  
              송공명은 두번 동관을 이기다 /295
- 제 78 회    열 절도사는 량산박을 소탕할 의논을 하고  
              송공명은 처음 고태위를 패배시키다 /312
- 제 79 회    류당은 불을 놓아 전선을 태우고  
              송강은 두번째로 고태위를 패배시키다 /326
- 제 80 회    장순은 해추선밀창에 구멍을 뚫고  
              송강은 세번째로 고태위를 패배시키다 /342
- 제 81 회    연청은 달밤에 도군황제를 만나고  
              대종은 피로써 악화를 구해내다 /367
- 제 82 회    량산박에선 금을 나누며 장을 벌리고  
              송공명 형제들은 모두 초안을 받다 /388
- 제 83 회    송공명은 칙명을 받들어 료를 치고  
              진교역에서 눈물 뿌리며 소졸을 베다 /409
- 제 84 회    송공명은 계주성을 들이치고  
              로준의는 옥전현에서 싸우다 /426
- 제 85 회    송공명은 야밤에 익진관을 넘고  
              오학구는 지략으로 문안현을 함락시키다 /445
- 제 86 회    송공명은 독록산에서 대전을 치르고  
              로준의는 청석욕에서 포위당하다 /464

- 제 87 회** 송공명은 유주에서 크게 싸우고  
호연작은 료장을 사로잡다 /479
- 제 88 회** 울안통군은 혼천상진형을 벌리고  
송공명은 현녀의 법술을 받다 /493
- 제 89 회** 송공명은 적진을 깨뜨려 공을 세우고  
숙태위는 성은을 전하고 조서를 내리다 /512
- 제 90 회** 송강은 오대산에서 참선을 하고  
연청은 쌍림진에서 옛친구를 만나다 /529

## 제 61 회

오용은 지략으로 옥기린을 꺾여오고  
장순은 야밤에 금사도에서 소동을 일으키다

룡화사의 중이 송강을 보고 삼절이라는 옥기린 로준의의 이름을 대자 옆에 있던 오용이 말을 했다.

“동생이 북경에 가면 이 세치의 혀만 가지고도 그를 산채로 데려오는것쯤은 문제가 없지만 다만 동행할 담대한 하인이 없어 한입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전에 흑선풍 리규가 불쑥 나서며 소리를 썩 질러댔다.

“군사형님, 내가 같이 가겠수!”

“동생, 자네는 제발 주책 떨지 말게. 불을 지른다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로략질을 하고 관청을 치는 일이라면 자네가 안성맞춤이지만 이 일은 조심해야 하니 자네의 성미로는 안되네.”

송강이 옥박지르자 리규는 두덜거렸다

“흥, 단지 내 얼굴이 험상궂은게 마음에 걸려 안 보낸단 말이 우?”

“그 리유는 아닐세. 지금 대명부에는 포리들이 구데기떼처럼 우글우글한데 실수를 해서 붙들리는 날이면 부질없이 목숨을 잃는단 말이야!”

“걱정도 팔자시우. 난 기어이 가겠수다.”

리규가 쇠고집을 부리자 오용이 조건을 달았다.

“그럼 내가 말하는 세가지를 듣겠다면 데리고 가고 안 듣겠다면

산채에 그대로 있도록 하게.”

“세가지가 아니라 서른가지라도 듣겠수.”

“그럼 들어보게. 첫째로 자네는 술이라면 오금을 못 쓰는데 지금 부터 일을 성사하고 돌아올 때까지 술을 딱 끊어야 하네. 둘째로 이번 길에 자네는 시종이 되어 내가 시키는대로 고분고분 들어야 하네. 마지막으로 이것이 제일 어려운데 자네가 래일부터 입을 꼭 다물고 병어리행세를 해야 하네. 이 세가지를 응낙하면 데리고 가지.”

“뭐 술을 끊고 시종행세를 하는것쯤은 괜찮수만 입 가진 사람이 병어리행세를 하자면 꽤나 답답해서 어디 견디겠수?”

“자넨 그 입만 열면 꼭 말썽이 일어난단 말이야.”

“젠장,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그것도 어렵잖수. 동전 한잎을 입에 물고 가면 될거 아니우.”

이번에는 송강이 한번 더 주의를 주었다.

“자네가 정 소원이라니 할수 없네만 그 대신 혹시 어떤 일이 생겨도 나를 원망하진 말게.”

“그런 근심은 마슈. 이 도끼 두자루만 있으면 제기랄 놈들의 대갈통을 천개는 찍을수 있수.”

여러 두령들은 모두 웃기만 했지 아무도 말릴 재간이 없었다.

이날 충의당에서 밤늦도록 그들을 위한 송별연이 벌어졌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오룡이 시종차림을 한 리규에게 짐을 지워가지고 산을 내려갔다.

송강은 여러 두령들과 같이 일행을 금사탄까지 전송하면서 아무쪼록 리규가 말썽을 피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오룡에게 신신당부했다.

오룡과 리규는 두령들과 하직하고 산채를 내려가고 송강 등 두령들은 산채로 돌아갔다.

오룡과 리규가 북경을 향해 떠난지 4, 5일, 날이 저물면 객점에서 눈을 붙이고 날이 밝으면 걷는 동안 리규가 얼마나 성가시게 하는지 오룡은 말할수 없는 괴로움을 당했다.

그들은 날마다 이렇게 며칠을 더 가서 마침내 북경성밖에 있는 한 주막에 이르러 려장을 풀었다.

그날 밤 리규가 밥을 짓겠다면서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얼마 되

지 않아 주막집 심부름군을 때려 피를 토하게 하였다. 심부름군이 오용이 있는 방을 찾아왔다.

“손님, 그 병어리시종은 여간 흉악한 놈이 아닙니다. 제가 불을 피우는데 좀 꾸물거린다고 이렇게 주먹질을 해서 피를 토하게 했습니다.”

오용이 깜짝 놀라 리규를 불러 야단을 치고 주막집 심부름군에게 10여관을 주어 사정사정 달래여 보냈다.

하루밤이 지나고 이튿날, 아침을 먹은 다음 오용은 다시 리규를 방에 불러놓고 단단히 경을 쳤다.

“오지 말라는데 기어이 따라와서 이렇게 애를 먹이느냐? 오늘은 성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제부터 장난이 아니네. 자칫하면 내 목숨도 오락가락하는 판이니 제발 조심을 해야 하네!”

“예, 다시는 그러지 않겠수.”

“내가 암호 하나를 알려줄테니 이제부터 내가 머리를 흔들면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단 말이네.”

리규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했다.

그들 둘은 객주집을 떠나 성안으로 들어가기전에 다시 차림을 갖추었다.

오용은 검은 선을 두른 흰 비단도복에 주름을 잡은 검은 명주두건을 쓰고 얼룩덜룩한 띠를 띠고 앞이 뭉툭한 검정형궤신을 신고 손에는 황금처럼 번쩍이는 구리방울이 달린 공이를 들었다.

리규는 성기고 노란 머리털을 빗어올려 쌍상투를 틀어엮고 무명으로 지은 짙막한 갈색도복을 입고 절구통 같은 허리에는 잡색띠를 질끈 동여매고 미투리를 신었는데 “강명담천(講命談天), 괘금일량(卦金一兩)”이라고 쓴 종이기를 단 한길이 넘는 장대를 어깨에 메었다.

두 사람은 차림을 끝내자 주막집 문을 잠그고 나와 북경성 남문을 향해 떠났다. 1리도 못 가서 성문이 보였는데 북경은 미상불 보기에도 으리으리한 곳이었다.

험한 지세에 높은 성벽  
해자 또한 넓고 깊구나  
둘레엔 가시울타리 총총하고  
사방에 작살이 숲을 이루었네

웅장한 고루우에 채색기발 현란하고  
 평평한 성벽우엔 창검이 삼엄하도다  
 전량은 무진하고 거리는 변화한데  
 정원마다 풍악소리 은은하고  
 점포마다 재물도 많네  
 수천 맹장이 성곽을 지키고  
 수만 서민은 상류도성에 사누나.

이때로 말하자면 천하각지에 도적이 별때처럼 일고있는터이라 주, 부, 현마다 파수가 삼엄한 형편이었는데 그중에도 북경은 첫손을 꼽는 요지이기때문에 량중서는 특별히 많은 병력을 통솔하여 질서정연하게 지키고있었다.

오용과 리규가 천천히 걸어가면서 보니까 높다란 성문아래에는 파수를 책임진 관원 하나를 중심으로 군사 40, 50명이 둘러앉아있었다.

오용이 앞서 나가 한마디 인사를 하니 군졸이 나와서 막아나섰다.  
 “어디서 오는 수재요?”

“소생은 장용(張用)이라고 합니다. 이 시종은 성이 리(李)가울시다. 보시는바와 같이 우리는 강호를 돌아다니며 점을 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오늘 대처에 와서 이곳 사람들의 운명을 점치려 합니다.”

오용은 이렇게 대답하면서 미리 가지고있던 가짜증명서를 군졸에게 내밀었다. 이때 모여선 군졸들이 리규의 낫을 보고 말했다.

“저 시종의 눈깔은 꼭 도둑놈처럼 사람을 쏘아보네!”

리규가 그 말을 듣고 별떡 성이 나서 당장 대들려다가 오용이 머리를 흔드는 바람에 그만 고개를 숙이고 가만있었다.

오용은 군사들앞으로 다가갔다.

“소생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리면 좋을지 실로 한입으로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저 시종은 똑심은 대단하지만 귀먹은 병어리울시다. 저의 집 종의 자식이라 할수없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놈이 버릇없이 군것을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이 인사하고 떠나자 리규는 뒤에서 털썩거리며 거리복판까지 따라갔다.

오용은 방울을 흔들면서 소리를 뿔었다.

“감라(甘羅)<sup>1)</sup>는 어려서 벼슬하고 자아(子牙)<sup>2)</sup>는 늙그막에 출세했다. 팽조(彭祖)<sup>3)</sup>는 장수하고 안회(顏回)<sup>4)</sup>는 요절했고 범단(范丹)<sup>5)</sup>은 가난하고 석숭(石崇)<sup>6)</sup>은 부자였으니 팔자는 타고난것이로다.”

오용은 방울을 흔들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뽑았다.

“그러한즉 사람의 팔자는 시, 운, 명에 달렸으니 앞날의 생사와 귀천을 알고싶은분은 돈 한냥만 내고 내 점을 쳐보시오.”

오용이 소리를 뽑고는 또 방울을 흔들었다. 그바람에 50, 60명의 아이들이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뒤를 따라오며 웃어댔다.

오용은 로원외의 등실한 대문앞에까지 가서 소리를 한번 뽑은 다음 의미심장하게 웃으면서 넌지시 판테로 갔다가 다시 대문앞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계속 그들의 뒤를 따르며 떠들어댔다.

이때 전당포앞에 앉아 집사들이 물건을 넣고 내주는것을 구경하고있던 로원외는 거리쪽에서 떠들썩하는 소리를 듣고 집사를 불러 물었다.

“길에서 왜 저리 떠들어대느냐?”

“원외님, 정말 우스운 일도 있습니다. 외지에서 온 점쟁이인모양 인데 글썽 복채가 온 한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쓸개빠진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을 내면서 점을 치겠습니까! 게다가 그 점쟁이를 따라다니는 시종의 상통이 하도 괴상망측하고 걸음걸이까지 거위 걸음처럼 우스우니 아이들이 따라다니며 웃는겁니다.”

“장담하는걸 보면 필시 학문이 넓은 점쟁일거야. 어디 한번 불러 들어봐라.”

로준의가 분부하니 집사가 급히 대문밖으로 달려갔다.

“여보 점치는 량반, 원외께서 청합니다.”

“누가 나를 불렀소?”

- 
- 1) 감라: 전국시대 진(秦)나라사람인데 조나라에 가서 다섯 성을 무너뜨리고 공을 세워 열두살에 상경의 자리에 올랐다.
  - 2) 자아: 강태공(姜太公)인데 주(周)나라사람으로서 주문왕(周文王)에게 발탁되어 벼슬을 한것은 그의 나이 70세때였다.
  - 3) 팽조: 태고때 전설에 나오는 선인으로서 7백살을 살았는데도 젊은 그대로였다고 한다.
  - 4) 안회: 공자의 제자로서 32살에 죽었다.
  - 5) 범단: 후한때 은사로서 벼슬을 시켜도 거절하고 몹시 가난하게 살았다.
  - 6) 석숭: 진(晉)나라에서 컷손가락을 꺾는 부자였다.

“로원외나리께서 들어오시라오.”

오용은 리규를 데리고 집사를 따라 문발을 제끼고 대청앞까지 가서 리규더러 아항의자(鵝項椅子)에 앉아 기다리라 하고 혼자 들어가 로원외를 만났다.

로원외의 풍채를 그린 “만정방(滿庭芳)” 사 한수가 있다.

맑은 눈, 팔자눈섭  
구척장신의 릉름한 위풍  
천신인가 하노라  
곤봉술 뛰어나고 룡같이 몸가짐 날래니  
그의 호신술 뉘라서 당하랴  
청렴함은 북경성에 소문나고  
세세대대 내려오며 부호로 이름났네  
전장에 나가면 만군을 무찌르고  
천군을 물리치네  
충성은 일월같이 빛나고  
장한 뜻 하늘에 치솟네  
의로움에 재물 아끼지 않으니  
그 인품 세상에 퍼졌네  
로원외의 이름은 준의요  
별호는 옥기린이라네.

오용이 인사하니 로준의가 몸을 굽혀 답례하고 물었다.

“선생님의 고향은 어디시고 존함은 어떻게 쓰시죠?”

“예, 저의 성명은 장용이고 자호는 담천구(談天口)라 합니다. 고향은 산둥이올시다. 저는 황극선천수(皇極先天數)<sup>1)</sup> 생사귀천(生死貴賤)을 헤아리는데 복채는 한냥씩 받습니다.”

로준의는 오용을 후당에 있는 자그마한 방으로 안내하여 자리를 권한 다음 차를 대접했다. 그리고 집사를 시켜 은 한냥을 가져오라 해서 복채로 내놓았다.

1) 황극선천수: 운명이란 뜻임.

“그럼 내 신수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생년월일이 언제시죠?”

“선생, 그런데 군자는 화를 묻지 복을 묻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부귀는 필요없으니 그저 앞으로 어떤 화가 닥치겠는 가만 알려주십시오. 나는 금년에 서른두살이고 갑자년, 을축월, 병인일, 정묘시 생입니다.”

오용은 쇠로 만든 산가지를 한줌 꺼내 탁자우에 놓고 한참 점을 치더니 산가지를 하나 골라잡아 탁자를 탁 치며 소리를 질렀다.

“허, 괴이하도다!”

로준의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길흉이 어떻습니까?”

“원외께서 언짢게 생각만 않으신다면 바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선생께 화를 면할 길을 물으려 한거니까 점괘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원외님은 이제 백일을 넘기지 않아 액운이 덮쳐 가산을 탕진하고 창검아래 목숨을 잃을것외다.”

로준의가 허허 웃으며 말했다.

“당치않은 말씀입니다. 이 로아무개는 북경의 부호집에서 태어났고 선조에도 법을 범한 사람이 없으며 일가친척에도 재혼을 한 녀자가 없습니다. 나로 말하면 매사에 근신하여 경우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았을뿐아니라 불의의 재물을 취한 일도 없는데 어찌 피를 흘리는 재앙을 당할리가 있습니까?”

오용은 얼굴빛이 변하면서 말없이 돈을 밀어놓고 벌떡 일어섰다.

“천하사람은 다 아침하는 소리만 듣기 좋아한다더니 과연 틀림없군! 분명 평탄한 길을 가르쳐주려 하는데도 충언을 마다하니 그럼 소생은 물러가겠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노여워마시우. 방금 내가 한 말은 톡답이니 방법을 가르쳐주십시오!”

“그러시다면 소생이 바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디 달리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귀담아들겠습니다. 거리낌없이 말씀해주시오.”

“원외님은 원체 운이 좋으시지만 올해에는 신수가 나빠서 액운이 덮쳤은즉 이제 백일안으로 목이 달아날것인데 이것은 타고난 팔자라 모면할 길도 없는가봅니다.”

“모면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오용은 다시 쇠로 만든 산가지를 내놓고 한참 점을 치더니 고개를 들고 로원외를 바라봤다.

“동남쪽으로 천리밖을 나가면 큰 재앙은 면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좀 놀라는 일은 있겠지만 신상에는 별일이 없을겁니다.”

“만일에 이 재앙을 모면할수 있게끔 인도해주신다면 선생의 은혜는 후히 갚겠습니다.”

“원외님의 운수를 말하는 점괘 네구가 있으니 적어서 벽에 써놓으시오. 후날 맞아떨어지면 내 말이 생각날겁니다.”

로준의는 하인을 시켜 필묵을 가져오게 하고 오용이 부르는대로 흰 벽에다 받아썼다.

갈대꽃 어우러진속에 한척의 쪼각배  
준걸이 어찌하여 예서 노니는가  
의사가 능히 이 리치 깨닫는다면  
반대로 화 피하여 무사하리라.

로준의가 다 받아쓰자 오용은 산가지를 챙겨놓고 자리를 뜨려하니 로준의가 그를 만류했다.

“이왕 늦었으니 천천히 점심이나 잡수시고 가시죠.”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제가 지체할수 없으니 후날 다시 뵈겠습니다.”

오용이 사양하고 물러가니 로준의는 문밖까지 나가 그를 전송해주었다. 문간에서 기다리던 리규도 지팡이를 들고 따라나섰다. 오용은 로준의와 작별한후 리규를 데리고 주막으로 돌아와서 숙박비를 물고 짐을 챙겼다. 오용은 다시 리규에게 기대를 메게 하여 데리고 나오며 말했다.

“이젠 대사를 끝냈다. 나는 이제 곧바로 산채로 돌아가서 로준의

를 맞이할 계책을 꾸미고 올라가기를 쳐야겠다. 그가 조만간에 올것이니까.”

한편, 로준의는 점을 친후부터 잠시도 마음을 놓을수가 없었다. 천강성이 한데 모이기 마련이어서 그랬던지 그는 점괘를 본 뒤로부터 더는 배겨낼수 없는지라 하루는 당직을 하는 집사를 시켜 청지기들을 불러 의논하기로 했다.

모인 청지기들가운데 리고(李固)라는 우두머리 집사가 있었다. 리고는 본래 동경사람인데 북경에 아는 친구를 찾아왔다가 만나지 못해 굶주림에 떨다 로준의의 대문간에 쓰러져있는것을 로준의가 구해주었다.

로준의는 리고가 부지런하고 글도 알고 셈도 밝은것을 보고 집안일을 맡겼다가 5년후에는 도관(都管)으로 승격시켜 안팎일을 다 맡아보게 하였던것이다.

리가 수하에 40, 50명의 집사들을 거느리게 되면서 모두가 그를 리도관이라고 불렀다. 이날 대소 청지기들은 리고를 따라 대청앞에 와서 대령하였다.

로준의가 그들을 둘러보고 물었다.

“그 앤 왜 안 보이지?”

그의 말이 끝나기도전에 섬돌아래에서 한 젊은이가 걸어오고있었다.

그의 모습은 이러했다.

6척이 넘는 후리후리한 키에  
나이는 스물네댓 되여보이고  
입가에 세가닥 수염이 나있구나  
길죽한 허리에 짝 벌어진 어깨  
머리에는 우를 접은 모과속 두건을 쓰고  
은실로 깃을 단 흰색 적삼을 입었고  
허리에는 거미줄무늬가 깔린 붉은 실타래 띠고  
발에는 누런 가죽신발을 신었네  
뒤덜미엔 짐승을 그린 한쌍의 금환을 드리우고  
목에는 향라휘양을 두르고

허리띠엔 명인선(名人扇)을 비스듬히 찌르고  
 살쩍에는 사계화 한송이를 꽂고있구나.

북경도박이인 그는 조실부모하고 로원외의 집에서 잔뼈가 굵었다. 로준의는 눈같이 흰 그의 살결을 보고 조에 깊은 장인을 시켜 그의 몸에 그림을 새겨주었는데 흡사 옥기둥에 연한 비취를 박은듯하였다.

만약 꽃무늬를 비기면 그 누구도 그를 따를자가 없을것이다. 꽃무늬도 곱지만 그는 또 불고 튕기는 악기도 곧잘 다루고 춤과 노래도 잘했으며 온갖 글자풀이에 이르기까지 못하는 재주가 없고 각 지방의 사투리와 장사군들의 언어에도 막히는것이 없었다. 뿐만아니라 무예 또한 당할자가 없었다.

사냥을 나갈 때면 화살 세개만 가지고 가도 백발백중이라 날이 저물어 성안으로 돌아올 때는 짐승을 백여마리씩 메고 돌아왔다. 그래서 활쏘기내기를 하면 상은 언제나 그의것이였다. 총명하기로도 따를자가 없을만큼 그는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아냈다.

그가 바로 항렬로는 첫째이고 이름은 연청(燕靑)인데 북경사람들은 습관처럼 그를 랑자 연청(浪子燕靑)이라고 불렀다.

여기에 연청을 노래한 “심원춘(沁園春)” 한수가 있다.

주사(朱沙) 같은 입술  
 칠혹 같은 눈동자, 얼굴은 백옥이런가  
 령민하고 용맹 또한 출중하고 뜻 장한데  
 총명은 타고난 자질이로다  
 소탈하고 의젓한 그 풍채  
 량산의 호걸들도 칭찬하리라  
 이주(伊州)의 옛 곡조 간드러지고  
 예원풍월(艺苑风月)에 으뜸이로다  
 가락 맞은 박판소리 하늘가에 울리고  
 생황의 노래곡조 그윽한 정 자아내네  
 곤봉을 번개 같이 놀리고  
 권법과 발길질 능하니

4백 군주(軍州) 함께 놀라네  
 사람마다 선망하는 영웅호걸  
 그 이름 랑자 연청이로다.

로준의의 심복인 연청은 대청에 올라 허리를 굽혀 인사한 다음 오른쪽에 서고 리고는 왼쪽에 섰다. 그러자 로준의가 말을 뱉다.

“내가 어제 점을 쳤더니 백일안으로 피를 흘릴 재앙이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동남방향 천리밖으로 가야 화를 면한다는구나. 그래서 나는 동남방향에 있는 태안주(泰安州)로 갈 작정이다. 거기서 가면 동악태산(東岳泰山)에 천하만민의 생사재액(生死災厄)을 맡아보는 천제인성제금전(天齊仁聖帝金殿)이 있느니라. 나는 거기서 가서 첫째는 죄를 씻는 분향을 하고 둘째는 재앙을 피하고 셋째는 장사도 하면서 그곳 경치를 구경할가 한다. 리고는 큰 짐수레 열대를 마련해서 산동에 가지고 갈 짐을 싣고 너의 행리도 꾸러가지고 같이 가기로 하자. 그동안 집안일은 연청에게 맡긴다. 연청은 오늘 당장 리고한테서 열쇠를 넘겨받아라. 나는 사흘안으로 곧 떠날 작정이다.”

그 말에 리고가 끼여들었다.

“주인나리님,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속담에 ‘점쟁이는 거짓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따위 점쟁이들의 쓸개빠진 소리를 믿지 말고 집에 가만히 계십시오. 무슨 일이 있을거라고 그러십니까?”

“팔자에 타고난 일이니 내 시키는대로 해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뒤에는 후회막급이니라.”

이번에는 연청이가 한마디 했다.

“비록 어리석은 소인이지만 주인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동 태안주로 가자면 랑산박을 지나야 하는데 들어서 아시겠지만 근년에 거기에는 송강일당이 화적패를 모아놓고 로략질을 하고있답니다. 지금은 관병들도 감히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니 주인님께서 만일 분향을 가시더라도 좀 기다려서 세월이 태평해지거든 가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어제 왔다 간 그 점쟁이놈의 말을 곧이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랑산박의 악당놈이 도사로 변장해가지고 어르신네를 속인건지도 모릅니다. 제가 집에 없었으니 말이지 제가 있었다면 두어마디 떠봐서 그놈의 정체를 훌쩍 벗겨 웃음거리로